

미 증시,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변동성 확대되며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최근 급락과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힘입어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출발.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부각되고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재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기술주 중심으로 재차 상승(다우 -0.26%, 나스닥 +0.98%, S&P500 +0.25%, 러셀2000 -0.02%)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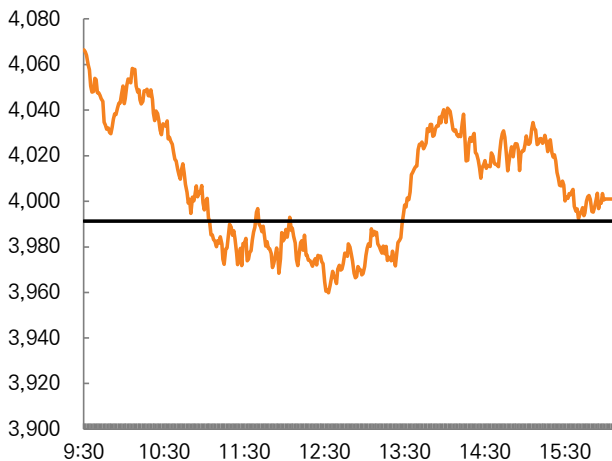
• 엔비디아(+3.81%)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회사인 넷애플(+2.38%)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는 발표로 상승. ASML(+2.09%), TSMC(+1.74%), 마이크론(+1.44%), 브로드컴(+3.28%), TI(+2.00%) 등 미국내 반도체 업종은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강세. 넷플릭스(+2.63%)는 올해 광고 포함된 저가 서비스,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4.47%), 로블록스(-5.77%), 코인베이스(-12.60%)는 시간 외로 각각 31%, 8%, 12% 하락 중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45%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6.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4%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중국의 부양책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지며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 중국 관세 철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언급한 점도 우호적. 그렇지만, 장 중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언급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약세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 후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반발매수세와 관망세가 충돌하며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96.56	-0.55	상해종합	3,035.84	+1.06
KOSDAQ	856.14	-0.55	홍콩항셱	19,633.69	-1.84
DOW	32,160.74	-0.26	베트남	1,293.56	+1.89
NASDAQ	11,737.67	+0.98	유로스톡스 50	3,554.80	+0.79
S&P 500	4,001.05	+0.25	영국	7,243.22	+0.37
캐나다	19,890.06	-0.55	독일	13,534.74	+1.15
일본	26,167.10	-0.58	프랑스	6,116.91	+0.5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연준 위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오늘 미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이 컸음.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앞으로 두번의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7월 FOMC에서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 여기에 메스터 총재는 전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주장했듯 75bp 금리인상을 무기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 장 초반 하락 야기

경제와 관련해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 메스터 총재도 금리 인상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나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며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고 주장. 윌리엄스 총재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경제는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를 논의 중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 실제 바이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주장. 비록 이번 회견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 평가는 긍정적. 특히 내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전월 발표치를 하회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러한 내용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를 하회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화는 강세폭이 축소 되었으며 미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컸으나, 장 마감 앞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기대로 재차 상승. 특히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가 이를 주도

이런 가운데 발표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100.2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보다 0.07 둔화. 그러나 미국은 100.1로 지난달 발표를 0.07 개선 되었으며, 중국은 경제 봉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99.4를 유지. 대체로 유럽 경기 선행지표가 부진했을 뿐 여타 국가들은 견고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히나 일부 완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1% 상승

엔비디아(+3.81%)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회사인 넷애플(+2.38%)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후 상승 했는데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ASML(+2.09%)은 5억 달러 규모의 그린채권 발행 성공 소식에 강세. TSMC(+1.74%), NXP 반도체(+3.20%) 등 글로벌 반도체 업종과 마이크론(+1.44%), 브로드컴(+3.28%), TI(+2.00%) 등 미국내 반도체 업종은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로 국제 금리가 하락하자 강세. 한편, 트렌드포스가 하반기 낸드플래시 공급과잉 우려를 발표했으나 영향은 제한. 어도비(+4.28%), 세일즈포스(+2.17%) 등 소프트웨어 업종도 금리 하락 영향으로 강세.

넷플릭스(+2.63%)는 올해 광고 포함된 저가 서비스,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이는 디즈니(+0.65%), 등 여타 스트리밍 업체들도 공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산업 전반의 강세를 견인. 애플(+1.61%), MS(+1.86%), 알파벳(+1.67%) 등 대형 기술주는 경기 둔화를 보일 경우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강세. 테슬라(+1.64%)는 MZ 세대가 주식 선택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여전히 테슬라가 1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 펠로톤(-8.70%)은 부진한 실적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 전망으로 하락.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유니티소프트웨어(-4.47%), 로블록스(-5.77%), 코인베이스(-12.60%)는 부진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각각 31%, 8%, 12% 하락 중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49	대형 가치주 ETF (IVE)	-0.39
에너지섹터 ETF (OIH)	+0.36	중형 가치주 ETF (IWS)	-0.27
소매업체 ETF (XLY)	-0.30	소형 가치주 ETF (IWN)	-0.45
온라인소매 ETF (EBIZ)	+0.83	대형 성장주 ETF (VUG)	+0.84
금융섹터 ETF (XLF)	-0.88	중형 성장주 ETF (IWP)	+0.54
기술섹터 ETF (XLK)	+1.52	소형 성장주 ETF (IWO)	+0.5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8	배당주 ETF (DVY)	-1.12
클라우드 ETF (CLOU)	-0.4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13
미국 리츠 ETF (VNQ)	-1.8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27
주택건설업체 ETF (XHB)	-1.37	미국 국제 ETF (IEF)	+0.33
바이오섹터 ETF (IBB)	+2.67	하이일드 ETF (JNK)	+0.43
헬스케어 ETF (XLV)	+0.36	물가연동채 ETF (TIP)	-0.45
곡물 ETF (DBA)	+0.7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2
반도체 ETF (SMH)	+2.58	모멘텀 ETF (MTUM)	+0.5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2,401.85	+1.58	-4.73	-7.88
에너지	583.66	+0.93	-2.21	-0.55
커뮤니케이션	196.89	+0.84	-3.45	-13.21
헬스케어	1,477.69	+0.33	-2.35	-9.45
경기소비재	1,173.40	-0.30	-8.74	-15.64
소재	510.79	-0.59	-5.09	-7.61
산업재	782.85	-0.65	-3.54	-6.73
필수소비재	793.97	-0.76	-0.52	-3.10
금융	558.31	-0.80	-3.92	-10.96
유틸리티	359.02	-1.24	-0.11	-6.88
부동산	261.32	-2.28	-9.11	-14.7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국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변화폭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45%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76.8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4% 하락.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급락 여파로 한 때 2% 넘게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는 발개위 발표로 경기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반발 매수세 유입돼 낙폭 축소. 특히 발개위는 신규 대출 규모 확대, 중소기업 감세 정책 범위 확대 등 주요 중점사업을 발표해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 더불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피크 이슈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0.55%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중국의 부양책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지며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 중국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언급한 점도 우호적. 그렇지만, 장 중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언급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약세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점은 부담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고용의 타이트함, 공급망 문제 등의 정점 가능성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부각되고 있지만 '증명의 시간'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 결국 관련 이슈들의 완화 기대는 높지만 아직은 초기 징후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적은 견고하기 때문에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또한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오늘도 한국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 후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반발매수세와 관망세가 충돌하며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소기업 가격 전가 비율 둔화

미국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3.2을 유지 했으나 예상치인 92.9를 상회. 다만 과거 평균치인 98을 4개월 연속 하회. 한편, 세부 항목을 보면 6개월 후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수치는 -50%로 4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예상 실질 매출 증가 전망 기업도 -12%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평균 판매 가격 인상 언급은 70%로 작년 4월 36%에 비해 크게 증가. 그러나 가격 인상 계획 비율은 지난달 50%에서 46%로 둔화



국제유가, 미국 생산 증가 및 중국 봉쇄로 하락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 더불어 EIA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유 생산이 올해 하루 72만 배럴 증가한 1,191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94만 배럴 증가한 1,285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달러화는 연준 위원들이 6,7월 50bp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야기 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더불어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발표 되었듯이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나 유로존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를 보이게 만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6,7월 50 bp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언급했음에도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 한편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지난번 발표된 2.48배를 상회한 2.59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했던 점도 하락 요인. 다만,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긴축 발언으로 2년물은 상승 하는 등 혼조 마감

금은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곡물은 브라질의 기록적인 옥수수 생산 기대가 부각되었음에도 건조한 날씨로 일부 지역의 작황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 더 나아가 미국의 옥수수 파종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한편, 최근 비가 내려 가뭄이 일부 해갈 되었던 중부 지역에 여전히 평년 이하의 강수량이 예보되자 여타 농작물도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67%, 철근은 0.74% 상승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99.76	-3.23	-2.59	Dollar Index	103.926	+0.27	+0.45
브렌트유	102.46	-3.28	-2.39	EUR/USD	1.0531	-0.28	+0.10
천연가스	7.31	+4.04	-8.10	USD/JPY	130.40	+0.08	+0.20
금	1,841.00	-0.95	-1.58	GBP/USD	1.2322	-0.08	-1.42
은	21.42	-1.81	-5.48	USD/CHF	0.9955	+0.16	+1.75
알루미늄	2,753.50	-3.11	-9.80	AUD/USD	0.6941	-0.16	-2.18
전기동	9,228.50	-1.98	-5.54	USD/CAD	1.3023	+0.09	+1.42
아연	3,597.50	-4.63	-12.41	USD/RUB	70.2583	+1.12	+2.73
옥수수	775.25	+0.42	-2.24	USD/BRL	5.1332	-0.53	+3.47
밀	1,092.75	0.00	+4.52	USD/CNH	6.7511	-0.08	+1.54
대두	1,592.25	+0.44	-2.35	USD/KRW	1,276.40	+0.19	+0.89
커피	203.80	-1.12	-6.49	USD/KRW NDF1M	1,276.86	+0.10	+1.2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89	-4.49	+1.77	스페인	2.100	-11.20	+7.80
한국	3.410	-1.00	+1.90	포르투갈	2.142	-10.20	+7.80
일본	0.247	-0.10	+1.60	그리스	3.492	-11.70	+12.60
독일	1.000	-9.50	+3.50	이탈리아	2.998	-15.00	+11.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